

문화



광주지하철 타고 문화여행 '고고씽'

공연 무대·갤러리·전시관 등 '풍성'

무료 미용소·진료소·사진관 운영도

광주지하철은 이제 단순한 교통 수단이 아니다. 그곳에 문화가 흐르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함이 흐른다. 광주지하철은 '문화 아이콘'이자, 광주의 '제로·오늘·내일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19개역 사에는 문화·인권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다양한 전시관이 자리잡고 있다.

▶문화·인권·환경 지하철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운영하는 광주지하철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문화 랜드마크' 기능을 특별히 하고 있다.

상무역, 농성역, 금남로 4가역, 남광주역, 평동역에는 공연무대가 마련돼 있고 이곳에서는 연간 300회가 넘는 공연이 진행된다.

전시 공간도 풍성하다. 금남로 4가역에는 '추억의 영화 거리'(금남로 5가역)도 운행 중이다.

또 광주지하철 문학관(송정공원역)과 '문화원형 콘텐츠 전시관'은 국방 임방울 선생 국악전시관(송정공원역)에서는 선생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전시 자료와 판소리 다섯마당 체험공간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광주지하철 문학관(송정공원역)과 '문화원형 콘텐츠 전시관'은 국방 임방울 선생 국악전시관(송정공원역)에서는 선생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전시 자료와 판소리 다섯마당 체험공간 등을 만날 수 있다.

지하철에는 시심(詩心)도 흐른다. 용아 박용철, 다형 김현승, 영랑 김윤식 등 지역 대표작가들의 시와 시화, 수필 등 600여점이 각 역사마다 설치돼 있다.

특히 각 역사마다 특색 있는 전시관을 운영하는 게 눈에 띈다. 농성역에는 호남 지역 향토·역사 문화 박물 및 연구 결과물

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호남학 100대 문화원형 콘텐츠 전시관'이 있고 국방 임방울 선생 국악전시관(송정공원역)에서는 선생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전시 자료와 판소리 다섯마당 체험공간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광주지하철 문학관(송정공원역)과 '문화원형 콘텐츠 전시관'은 국방 임방울 선생 국악전시관(송정공원역)에서는 선생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전시 자료와 판소리 다섯마당 체험공간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남광주역에 마련된 '메트로 열린 도서관'(062-604-8434)에는 6천여권의 장서가 비치돼 있다. 전국 지하철 역사에 처음 마련된 도서관으로 한번에 3권까지 빌릴 수 있다.

▶무료 봉사·체험 프로그램
경로,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

언문 등 국내외 인권 운동을 총망라한 '세계인권전시관'을 조성했으며 멀티 영상 시스템 등을 갖춘 '5·18 흥보관'(문화전당역), '학생독립운동 흥보관'(금남로 5가역)도 운영 중이다.

또 학동·증심사 입구역에서는 '광주의 명산 무등산 전시관', '저탄소 녹색 환경 전시관'을 이루는 '환경 테마관'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남광주역에 마련된 '메트로 열린 도서관'(062-604-8434)에는 6천여권의 장서가 비치돼 있다. 전국 지하철 역사에 처음 마련된 도서관으로 한번에 3권까지 빌릴 수 있다.

그밖에 15개 역에는 255대의 자전거를 비치, 매일 오전 6시~8시(반납은 11시까지) 무료로 대여해준다.

▶김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족 등에게 따뜻한 이웃 사랑을 전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된다.

호사랑 무료 이·미용소는 도산역(매주 월요일 오후 2시)과 금남로 4가역(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5시)에서 진행되며 무료양·한방 진료소(금남로 4가역·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행복장수 무료 사진관(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2시~5시), 외국인 근로자·가족의 어울마당인 '다문화존'(매월 네번째 토요일 오후 6시~9시)도 운영한다.

또 학동·증심사 입구역에서는 '환경 테마 전시관'과 남광주 역 인근 시민이 함께 조성한 푸른길 공원 담사, 용산기지 사업소의 자하늘 흥보관 견학 및 탑승 체험이 어우러진 '친환경·지역 생활문화 체험' 등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견학·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그밖에 15개 역에는 255대의 자전거를 비치, 매일 오전 6시~8시(반납은 11시까지) 무료로 대여해준다.

▶김은기자 mekim@kwangju.co.kr

● 금남로4가 (추억의 영화거리) (한성독립운동홍보관)

● 금남로4가 (메트로갤러리) (행복장수사진관) (공연무대)

● 문화전당 (5·18홍보관)

● 남광주 (열린도서관) (공연무대)

● 학동·증심사 (무등산전시관) (환경테마관)

● 소태

● 녹동

● 용산기지 (친환경생활문화체험)

신임 문화정책 실장에 바란다

지난 2007년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누구도 예상못한 대형사고(?)를 쳤다. 서울시를 '뜯어고친다'는 이유로 '디자인 서울총괄본부'(디자인본부)를 발족한 데 이어 공공디자인 분야의 권위자인 권영길 서울대 미대학장을 본부장에 앉힌 것이다. 무엇보다 세인들의 이목을 끈 건 디자인 본부의 위상이었다. 오 시장이 직접 쟁기는 직속기구인 데다 권 본부장의 '비중'이 이부시장급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오 시장의 '생뚱맞은' 선택에 회의적인 시선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오 시장의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권 본부장은 도시의 품격을 해치는 공공의 적으로 '들쭉날쭉 간판'을 지목, 가장 먼저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정비에 손을 댔다. 재임기간 2년 동안 가로 및 건축 외관관리, 한강변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해 칙칙한 서울의 표정을 산뜻하게 바꿨다.

오 시장이 디자인 본부를 창안한 것은 공공디자인을 문화도시의 필수요소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거리가 많더라도 도시의 분위기가 '문화적'이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오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디자인 본부는 서울을 문화도시로 변신시키는데 큰 뜻을 하고 있다.

디자인 본부가 서울의 문화행정을 아우르는 구심체라고 한다면 광주시 문화체육정책실(문화정책실)은 예술 광주의 그것이다.

지난 2005년 1월 박광태 광주시장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사업과 문화행장을 총괄하는 기구로 기존 문화관광국과 문화수도 추진지원단의 기능을 합친 문화정책실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찾은 인사교체와 낮은 전문성으로 문화정책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대전, 대구 등 다른 자치체들이 외부 전문가들을 특혜해 공무원 조직의 전문성을 높인 것과 달리 정책실엔 문화전문가가 단 1명도 없다.

특히 빈번한 인사가 문제다. 최대 실장이 6개월만에 자리를 물갈 데 이어 후임 역시 3개월만에 바뀌는 등 불과 1년 사이에 3명이 교체됐다.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무려 6명의 실장이 양산된 것이다. 신임 실장이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바뀌다 보니 문화전당과 관련된 현안들이 진전되지 못하고 원론에서 다시 검토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최근 광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도청별관문제가 '지난날' 아시아 문화전당 설계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볼 때 정책실이 이번 '별관논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단행된 광주시 인사에서 문화정책실의 수장으로 임명된 김동을 실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청별관문제를 비롯해 베이징 창작스튜디오 개설과 지역의 문화현안들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문화정책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신임 실장은 광주의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무기력한 위상을 주스리는 일부터 쟁어야 한다. 역대 문화정책 실의 관행(?)대로 잠시 거쳐가는, 단명(短命) 실장으로 민족해선 안된다. 그러기엔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문화 현안들이 너무나 많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염원의 빛을 담은 예술가, 전화황 탄생 100주년기념전

12월1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나라 젊은 설움과 전쟁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던 재일동포화가 전화황(1909~1996년)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12월1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염원의 빛을 담은 예술가, 전화황 탄생 100주년기념전'.

이번 전시는 그의 예술세계를 '평양시절과 여명(黎明)' '일등원 생활과 텁포' '전쟁과 두개의 태양' '향수(鄉愁)' '생명' '마음의 평원' 등 여섯 섹션으로 나눠 작품을 소개한다.

또 재일교포로서 느낀 한국전쟁과 분단 조국을 두 개의 태양으로 상징화한 '태양과 裳', '태양과 잡초' 등의 대표작도 함께 선보인다. 평안남도 출신인 그는 지난 1938년 일본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 끊이지 않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기도의 메시지를 작품에 담았다.

한편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에 전화황의 작품을 비롯해



'전쟁의 낙오자'

2천700여점의 작품을 기증한 재일교포 하정웅(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의 메시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문의 062-510-0131. /오픈록기자 kroh@kwangju.co.kr

서양화가 남해영 개인전 ▶ 26일까지 자미갤러리

화사한 색채로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서양화가 남해영씨가오는 26일까지 광주시 북구 증종동 자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남씨는 지난 1년 동안 담양의 작업실에 머물면서 창작했던 신작을 선보인다. 민들레 허리케이 페페기는 들녘과 고즈넉한 저녁 풍경이 고스란히 화폭에 담겼다.

또 애완견, 꽃다발, 솟아오른 아파트 빌딩, 토끼, 고양이 등을 소재로 자연과 도시의 소통을 꿈꾸는 작품 들도 눈에 띈다.

호남대학교 미술학과 출신인 남씨는 '아름다운 삶의 그림' 전, '광주·전남 여류작가 초대' 전, '인사동사람들 한여름



'청도 보리밭'

밤의 꿈' 전 등에 참가했다. 문의 062-410-8395. /오픈록기자 kroh@kwangju.co.kr

영화안내 HAPPY TIME

인기영화 즐거운시간 보내세요

한토시립영화시네마 *예매: 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화교점)

1관 10억 (15세)/업 - 더빙 (전체)

2관 불신지옥 (15세)

3관 국가대표 (12세)

4관 국가대표 (12세)

5관 4교시 추리영역 (15세)/아이스에이지-3 (전체)

6관 헤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체)/아이스에이지-3 (전체)

7관 해운대 (12세)

8관 퍼블릭에너미 (15세)

9관 지.아이.조 (15세)

10관 해운대 (12세)

[상무점] 매일 팝콘 무료증정!

1588-7941

상무점 1층

영화관 2층

영화관 3층

영화관 4층

영화관 5층

영화관 6층

영화관 7층

영화관 8층

영화관 9층

영화관 10층

영화관 11층

영화관 12층

영화관 13층

영화관 14층

영화관 15층

영화관 16층

영화관 17층

영화관 18층

영화관 19층

영화관 20층

영화관 21층

영화관 22층

영화관 23층